

보건복지동향

(2006. 9. 21 ~ 2006. 10. 2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 편집자 주 -

결핵, 2030년 까지 퇴치한다 『Stop TB Plan 시행』

- 위기 진단 근거
 - 지난 50년간 국가결핵관리사업 추진결과, 1965년도 엑스선상 활동성 결핵 환자수가 1,240천명에서 2005년도 169천명으로 감소하여 대외적으로 결핵관리가 잘된 나라로 평가받아 왔다.
 - 그러나 연간 결핵 신환자발생(35,269명)과 결핵사망자(2,948명)는 OECD 30개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 최근들어, 점차 결핵 신환자와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발생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 특히 20대와 노인층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여 결핵발생의 후진국 형태를 띠고 있다고 밝혔다.
 - 결핵은 암이나 심·뇌혈관질환과는 달리 전염력이 강하지만 꾸준히 약만 잘 복용해도 낮은 질병이므로 국가가 철저히 관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결핵퇴치 2030 계획』은(1단계: 2006~2010, 2단계: 2010~2020, 3단계: 2021~2030) 추진목표로서 “TARGET 3-100 (100%발견, 100%추구관리, 100%치료성공)”을 설정하고 단계적인 사업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3단계가 끝나는 2030년에는 WHO의 결핵퇴치 목표를 20년 앞당겨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결핵퇴치 수준: 100만명당 1명 이하 발생)
 - 1단계 사업은 결핵발생률(도말양성)을 인구 100만명당 2006년 390명에서 2010년 293명으로 낮추고(25%), 치료성공률도 2006년 67%에서 2010년 85%로 향상시키는(25%) 계획이라고 밝혔다.

※ 도말양성 환자: 결핵환자의 가래를 현미경으로 검사하여 결핵균이 검출된 환자(전염력이 있는 환자)

산재보험 “찾아가는 서비스” 효과 높아

- 산재보험의『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한지 1년 만에 산재장해인의 직업복귀율이 증가하고, 산재환자 서비스도 만족도가 크게 증가하는 등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산재장해인의 직업복귀율이 지난해 42.3%에서 올해 8월 현재 46.0%로 8.7% 증가하였고, 산재요양 결정 민원처리기간도 73일에서 60.7일로 16.8%단축되었다고 28일 밝혔다.
- 또한, 매년 13~15%씩 증가하던 평균 요양기간도 올해에는 2.4% 감소('05년 267.2일→'06.1~8월 260.7일)하였고, 산재보험 서비스에 대한 산재환자의 만족도도 지난해 7월 39.6%에 불과하였으나 11월에는 46.6%, 올해 6월에는 73.7%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덧붙였다.
 - 이에 따라 매년 17~20% 증가하던 보험급여가 지난해에는 5.8% 증가(30,257억원)에 그쳤고, 올 8월 현재까지는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여 4.1%증가(20,847억원)하는 등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찾아가는 서비스』는 그 동안 산재보험의 요양·보상업무가 산재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재활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산재환자 및 의료기관 관리도 취약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지난해 10월 산재보험 혁신차원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 『찾아가는 서비스』는 최초 재해발생부터 치료, 재활, 사회복귀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산재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 구체적인 내용은 보상조직을 재해조사·현장서비스·급여지급팀으로 구분·운영, 기능별로 전문화 하였고, 최초 재해발생시 사업주 및 근로자를 직접 방문하여 재해조사를 하는 등 업무상 재해 여부를 신속·공정하게 판단하고 있다.
 - 또한, 요양중인 산재환자에 대해서는 보상업무 경력자·간호사·재활상담사가 한 팀이 되어 직접 상담을 실시하여 상병상태·치료기간 등에 따른 적정치료를 유도하고, 재활·직장복귀 지원 등 산재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간호사 120명, 재활상담사 37명 등 현장서비스 인력 252명 증원하여 현장에 투입하였다.
 - 아울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산재환자가 우수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 요양기관 부당청구 내부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 Y요양병원은 입원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하여 실시하지 않은 진료비를 청구하고 통목욕 간호의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부당청구하였다가 내부종사자의 신고로 적발되었다. 이 요양원에 대한 부당확정금액은 총 12,888,940원에 달하고, 내부신고자는 2,574,000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 H요양병원은 물리치료가 실제 2명만 근무함에도 5명이 상근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이학 요법료를 부당청구하였다가, 역시 내부종사자의 신고로 적발되었다. 이 요양병원의 내부신고자도 4,570,000원을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 이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해 온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의 운영에 따른 것이다.
- 등 제도는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해당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행위를 신고할 경우, 그 신고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당금액의 10~30%에 이르는 금액을 최고 3,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다.
- 복지부는 지난 26일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6명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였다고 27일 밝혔다.
- 요양기관 내부종사자가 신고한 요양기관 6개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73,179천원의 부당금액을 환수결정하고, 이 중 신고내용과 관련이 있는 허위·부당금액 54,461천원을 기준으로 6명의 신고자에게 총 13,577천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 해당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3개소, 과징금 부과 2개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 복지부는 “포상금 제도에 대한 홍보 활성화하고, 신고된 건수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제도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 ■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 혁신방안 마련

- 정부는 '06.9.25(월) 오전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82회 국정과제회의에서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 혁신방안」을 보고하고, 향후 국무총리실에 「사회보험적용·징수통합추진기획단」을 설치하여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 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 적용·징수체계를 효율화하고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세청 산하에 「(가칭)사회보험징수공단」을 신설하여 부과·징수 업무 및 그에 수반되는 자격관리(적용)업무를 각 보험공단으로부터 위탁, 수행하는 방안이 보고되었다.
- 이를 통해 각 보험공단이 중복해서 수행하는 적용·징수업무를 효율화할 뿐만 아니라 여러 보험공단을 상대해야 하던 보험가입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 기존 보험공단들은 가입자인 국민에게 봉사하는 서비스기관으로 탈바꿈하여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 국민연금,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실시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오는 10월 1일부터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고객은 물론 방문상담을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실시한다.
- 이 서비스는 공단지원이 고객이 사전에 요청한 곳으로 직접 방문해서 민원상담 및 접수 등 연금 업무를 실시하는 서비스다.
 - 지금까지는 중증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연금 지급 신청을 하거나 연금 수령 도중 사망, 재혼, 장애발생으로 연금을 받는 요건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불편을 무릅쓰고 지사를 방문해야 했다.
- 제공 주요 서비스는 고객에게 맞는 맞춤형 연금급여 상담, 급여신청서 및 변동신청서 접수, 장애연금 신청관련 의료기관 동행서비스 등이다. 또한 관내 노인일자리·노인복지시설 및 재활기관 알선, 동사무소 사회복지 관련 연계서비스 등도 제공하게 된다.
- 서비스는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신청하거나 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및 지사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 『찾아가는 서비스』는 우선 연말까지 실시 결과를 토대로 고객이 주로 원하는 서비스 내용과 수준,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한 뒤 내년부터 CSA(노후설계컨설턴트) 제도 등과 연계해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전국 91개의 지사가 있으며, 각 지사 위치는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4u.or.kr)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3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 10명중 8명은 완치가능하고 조기발견시 9명 이상 완치

-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와 한국유방암학회는 1993년부터 2002년까지 10년 동안 유방암으로 진단받은 46,355명을 추적 조사하여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5년 상대생존율(이하 생존율)은 83.5%, 10년 생존율은 76.6%로 나타나 유방암 환자 10명중 8명은 완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 상대생존율(%) = 암환자 관찰생존율 / 암환자군과 동일 성별, 연령군의 일반인구 기대생존율
- 암으로 처음 진단받을 때를 기준으로 최초 진단 당시의 병기별 5년 생존율을 확인한 결과, 1기 98.2%, 2기 91.7%, 3기 68.2%, 4기 30.5%로 나타나 유방암을 조기에 진단하면 환자 10명 중 9명이 완치가능하나, 진단이 늦어질 경우 완치 가능성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기간 10년 중 전반기 5년(1993년~1997년)생존율은 79.6%이나, 후반기 5년(1998년~2002년)의 경우는 86.3%로 약 6% 증가했는데, 이처럼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진 것은 조기에 진단받은 유방암 환자의 비율이 증가한 것과 국내치료기술 향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향후, 보건복지부와 한국유방암학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유방암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국가암 조기검진과 홍보를 강화하고, 국내의료진의 유방암치료에 대한 선진화 등을 통해 유방암환자의 생존율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비만 예방을 위한 ‘똑똑한 밥상’ 자료집 제작·배포

- 보건복지부는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의 열량과 나트륨 함량정보를 수록한 포켓용 음식 사전 “주머니 속의 똑똑한 밥상”을 총 40만부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 “주머니 속의 똑똑한 밥상”에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우리 국민이 많이, 그리고 자주 섭취하는 음식들의 열량과 나트륨 함량정보를 제시하였으며, 그 중 73종 음식의 1인 분량 사진을 함께 제시하여 누구나 자신이 먹은 음식의 열량과 나트륨 함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본 자료집은 우리 국민의 비만 예방을 위한 ‘100kcal 덜 먹고 100kcal 더 쓰기’와 ‘소금섭취량 감소’의 실천을 독려하는데 실제적인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건강증진 웹 포털사이트 ‘건강길라잡이’의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 ‘건강 다이어리’를 가동시켜 개인의 식생활 기록을 유지·평가할 수 있게 함으로서 개인별로 맞춤형 식생활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건강길라잡이 홈페이지(<http://www.hp.go.kr>) → 사용자 등록 → ‘건강 다이어리’ 다운로드 (무료 사용)
- ‘건강다이어리’는 개인 각자가 섭취한 음식의 열량과, 신체활동을 통해 소비한 열량을 추정·평가해 주는 온라인 프로그램이다. 이는 “주머니 속의 똑똑한 밥상”에 제시된 내용과 함께 약 1,000여종 음식에 함유된 열량과 나트륨 정보를 제공하며, 일상적 활동과 스포츠·레저 활동의 소비열량을 쉽게 설명하여 섭취량과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이는 식생활에 대한 간단한 영양평가 결과도 함께 제시하여, 개인의 체중관리 및 건강생활 실천을 독려할 수 있도록 계획된 실천 프로그램이다.

■■■ 성인 남성 흡연율 30%대, 멀지 않았다!

-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2006년 9월 현재 성인 남성흡연율이 45.9%로 조사되어, 지난 3월 50%대의 장벽을 무너뜨린 지 6개월 만에 다시 성인 남성 흡연율이 3.3%p나 하락하였다고 밝혔다.
- 이처럼 지난 2004년 9월 57.8%이었던 흡연율이 45.9%까지 11.9%p나 하락한 이유는 지난 2004년 12월 말 담배가격 500원 인상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고,
- 대상자별로 세분화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금연홍보·교육, 금연구역 확대,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등의 다양한 비가격 금연정책도 한 몫 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 ※ 성인남성흡연율(한국갤럽) : 57.8%('04.9) → 53.3%('05.3) → 52.3%('05.6) → 50.3%('05.9) → 52.3%('05.12) → 49.2%('06.3) → 47.5%('06.6) → 45.9%('06.9)

■■■ 복지부,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직무역량강화 교육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노인일자리아업의 활성화를 위해 9월 25일(월)부터 9월 29일(금)까지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종사자 275명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변재관)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실무자들의 교육편의 및

교육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4개 권역별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월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욕구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되었다.

- 교육과정은 노인취업상담, 수요처 개발 및 교섭,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 실무자들이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며, 해당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사업 현장에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종사자들의 직무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교육참여자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통해 지상파 LBS(Location Based Service)를 활용한 위치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 12월부터 단말기 600대를 보급하기로 하였다.

- 단말기 보급은 보건복지부 위탁기관인 실종아동전문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보급대상은 반복적으로 실종되었다 복귀 되는 장애인, 장애인시설 및 특수학교의 신청을 받아 보급할 계획이다.

- 한편, 실종아동 및 실종장애인의 조기 발견에는 관계기관 담당자외에 일반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발생한 실종아동과 장애인의 사진을 E-mail로 받아 주위에 확산시키는 미아서포터즈에 협조하여 현재 24,000명이 서포터즈로 가입하였다.

※ 미아서포터즈 가입방법 : 보건복지부위탁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 방문 · 신청
(<http://www.missingchild.or.kr/supporters>) ☎ (02)777-0182

■ '05년 화장률 52.6%로 화장중심의 장묘문화 시대 도래

- 보건복지부는 10월 2일 '05년도 전국 화장률이 52.6%라고 발표했다. 이는 국민들의 장사방법에 대한 의식이 매장에서 화장중심으로 급격히 바뀌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간 정부와 시민단체에서는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화장장려 정책, 화장서약 운동 등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 화장률이 높은 지역 : 부산(74.8%), 인천(69.0%), 서울 (64.9%)
- 화장률이 낮은 지역 : 전남(27.2%), 충북(29.7%)
- 전년대비 화장률이 높은 지역 : 경북 43.3%(5.9%증), 전북 39.5(4.7%증)

- 앞으로 화장률은 계속 증가하여 2010년 경에는 화장률이 7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화장수요 증가에 따른 화장시설 부족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 장사등에관한법률을 개정(현재 법제처 심사완료)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화장시설 확충의무를 부과하고, 타 지역주민들에게 화장요금을 차등부과하여 그 수익을 해당지역 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증가하는 화장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장사시설 신 · 증축 지원 사업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장관:유시민)와 실종아동전문기관(소장: 김종우)은 장애인(정신지체인 · 발달장애인 · 정신장애인)의 실종 예방과 조속한 발견을 위해 장애인의 실종 및 보호 실태조사를

■ 유시민장관, “의료급여 혁신 대국민보고서” 발표

-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의료급여 제도 혁신에 대한 국민보고서’를 냈다.
-유장관이 추석 연휴를 이용해 자택에 머무르며 직접 작성한 15쪽짜리 보고서는 현행 의료급여 제도의 상황과 문제점과 혁신 방안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로 쉽게 작성됐다. 장관이 대국민 보고서를 직접 집필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 보고서에서 유장관은 “현행 의료급여 제도의 상황을 볼 때, 저는 참여정부의 각료로서, 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부끄러움과 죄의식을 느낀다”면서 “이 보고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들 앞에 제출하는 공개적인 반성문”이라고 밝혔다.

-그간 공무원들이 작성한 보고서와는 상당히 다른 형식으로, 장관 개인의 의견까지 담아 작성된 이 보고서는 특히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제도 혁신 방안을 놓고 시민사회, 학계, 정치권의 반발이 우려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보고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내 장관블로그(http://www.mohw.go.kr/blog_index.jsp)에 전문이 게재됐다.

■■■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없는 사회! 우리 함께 만들어요.**

- 보건복지부는 10월 19일(목)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회장 송웅달)와 함께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 모두가 이웃입니다” 주제로 건국대 새천년기념관에서 2006년도 정신건강축제를 개최하였다.
 - 이번 “정신건강축제”에는 정신장애인과 가족 및 자원봉사자등 약 2,000여명이 참여하여 정신건강 백일장, 포스터 전시회, 정신장애인 생산작품 판매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하였다.
-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정신장애인 및 가족들을 격려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 및 환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할 것이며, 마음을 열고 정신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2006년 정신건강축제에서는 정신장애를 극복한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 자원봉사자 및 정신보건관계자 등 17명에게 정신건강대상(보건복지부 장관표창) 및 우수상(협회장상)이 수여된다.
 - 특히, 자원봉사부분 대상을 수상한 한광식씨(66년생)는 택시운전기사로서 “버거스씨 병”으로 수차례 수술을 받고, 손가락, 발가락이 절단되는 어려움속에서도 8년동안 정신장애인들의 발이 되어 주었으며, 동료기사들을 독려하여 29명의 차량운행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였다.

■■■ **가정산소치료, 건강보험에서 매월 9만6천원 지급**

-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COPD) 등 만성심폐질환자가 가정에서 산소발생기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 1만여명 대상, 연간 보험재정 100억여원 소요
- 이와 함께 장애인보장구 구입시 저소득 장애인의 목돈 마련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보험적용금액은 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안이 신설되고,
- 요양기관외에서 출산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던 요양비(현금급여)가 현재 7만원 수준에서 25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 1천여명, 연간 보험재정 2.5억여원 소요
-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령안”과 “요양비의 건강보험 기준 및 방법”(고시)을 10월18일 공포(고시)하고,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국가 질병관리 정책·정보를 총망라한 ‘2005 질병관리백서’ 발간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 오대규)는 9일 전염병을 비롯한 질병의 예방 및 관리와 시험·연구분야의 성과를 총정리하고 향후 국가 질병관리의 정책방향을 제시한 ‘2005 질병관리백서’를 발간하였다.
 - 본 백서는 총 4부 546쪽으로, 질병관리본부 1년 여 간의 업적 및 비전을 포함하여 제 1부 정책 및 추진방향, 제 2부 질병관리, 제 3부 질병연구, 제 4부 국제협력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질병관리 정책 및 연구현황을 각종 통계와 함께 수록하였다.
- 특히 동 백서에는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대응책 마련’에 관한 자료 및 참여정부의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발전 중인 생명공학분야의 성과와 주요 실적들이 실려 있으며
 - 또한, ‘미얀마와 중국의 말라리아 해외거점실험실 구축사업’, ‘기생원충성 병원체의 한국과 일본 유전적 특성 공동 연구’, ‘폴리오 박멸사업’ 등의 국제협력에 관한 내용도 수록되어 있다.
 - ※본 백서는 질병관리본부(<http://www.cdc.go.kr>)홈페이지에 게재됨

■■■ **노인수발보험제도, 국민 91%가 도입 찬성**

- 보건복지부는 '08년 7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전면적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안을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 제출한 한편,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사전 준비를 내실 있게 수행해 나가고 있다.
 - '06년 9월 18일 정부안과 5개 의원안(정형근·안명옥·김춘진·장항숙·현애자 의원 각각 대표발의)을 포함하여 총 6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 일괄 상정되었고, 보건복지상임위는 오는 11월 2일 법안 공청회를 개최한 뒤 본격적인 법안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 노인수발보험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할 것인지 문제, 관리운영주체를 결정하는 문제 등 몇 가지 주요 쟁점이 있지만, '08년 전면 시행을 감안하여 금년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제2차 시범사업('06.4~'07.3)은 광주남구·부산북구·수원·강릉·안동·부여·완도·제주 등 8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 9월 30일 현재 8개 지역 65세 이상 201,954명 중 19,363명(9.6%)이 수발인정신청을 하였으며, 이중 등급판정을 위한 방문조사를 17,587명(신청자 대비 90.8%)에 대해 실시하여 총 4,394명(조사자 대비 25.0%)이 수발인정(1~3등급)을 받았다.
 - 수발인정자들의 절반 이상은 치매(29.1%) 또는 중풍(27.5%)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수발자

가 없는 독거노인도 약 15%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제3자에 의한 수발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 수발인정자 4,394명 중 시설입소 1,209명, 재가이용 766명, 가족수발비(현금급여) 135명으로 수발인정자 중 총 2,110명(48.0%)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 나머지 수발인정자 중 1,103명(25.1%)은 병·의원 입원중이거나 서비스 계약절차 진행 등의 사유로 서비스 신청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고, 1,181명(26.9%)은 가족에 의한 수발을 지속하겠다는거나, 이용시 자부담(이용금액의 20%)이 부담되어 아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수발대상자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3개 시범사업지역(광주 남구, 수원, 부산 북구)에서 11월 중순부터 휠체어, 지팡이 등의 복지용구 구입·대여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복지용구는 거동이 불편한 수발대상 노인들에게 필요한 휠체어, 지팡이, 전동침대 등의 용품을 통칭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14개 품목(목록 별첨)에 대한 수발보험 급여를 실시한다.

- 특히 복지용구는 노인들 스스로의 자립적인 생활을 보조하고 수발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용품들로서, 일본이나 독일 등 수발보험 선진국에서는 이미 복지용구 급여가 보편화되어 있다.

■ 「어린이 환경보건 대책」 본격 추진

□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등 어린이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어린이 환경보건 대책('06~'15)」을 '07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

○ '90년대 이후 어린이 아토피, 천식이 급증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급격히 증가하는 등 환경성 질환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어린이 건강보호가 시급한 상황

※ 초등학교 아토피 발생: ('95)16.6%→('00)24.9% (대한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학회, '00)

※ 전체 어린이의 16%가 천식(한국 천식알레르기 협회, '04)

□ 어린이의 유해물질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 주요 활동공간 등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 및 어린이와 보호자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전개하기로 함

※ 이를 위해 신규사업 등을 발굴하여 48억원 반영

○ 스쿨존, 학원, 보육시설의 중금속 및 유해화학물질 위해성을 평가하여 화학물질 사용규제를

년 도	'64년	'83년	'95년	'03년 (6~12세 기준)	'05년 (0~4세 기준)
유병률**	3.4%	10.1%	13%	15.7%	18.6%

** 유병률: 특정시점에 특정지역의 전체 인구 중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비율
* 천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05년 4.1조원(한국 천식알레르기 협회, '05)

강화하고 권고기준을 마련

○ 문구·놀이용품에 대하여 프탈레이트 등 환경호르몬 물질, 중금속함유량과 인체노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회수하는 제도 도입 추진

○ 또한, 어린이용품 생산 기업이 자발적으로 유해물질 사용을 줄이도록 독성과 위해성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품에 유해도를 표시하는 제도 도입

※ 미국의 경우 기업 스스로 유해물질 사용을 저감토록 하는 제도(Voluntary Children's Chemical Evaluation)와 유해물질 독성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Toxicity and Exposure Assessment for Children's Health)을 도입·운영 중

○ 학부모, 교사 등 어린이 보호자를 위한 행동지침 개발·보급 및 다양한 정보제공 시스템을 마련

○ 어린이 스스로 위해요인을 인지하고 접촉을 피할 수 있도록 '어린이 화학교실' 포털사이트 구축, 애니메이션 제작·배포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교육·홍보를 병행

○ 이와 함께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전국 3개의 병원을 어린이 환경성 질환 조사·연구센터로 선정하여 지원

○ 도시와 농촌의 질환발생 비교조사와 산모-영·유아를 대상으로 오염노출과 출생결함의 연관성 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

□ 이를 통해, 환경오염과 질환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환경오염과 화학물질 노출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보호 수준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사회복지분야 “보다 투명하게, 좀 더 국민결의로”

□ 보건복지부는 '06년 10월 17일 11시 프레스센터에서 유시민 장관과 김득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김성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등 사회복지분야 14개 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사회

복지분야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회복지분야 투명사회협약은, 사회복지분야 모든 참여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대화와 양보를 통해 투명한 사회를 만든다는 공동의 목표에 합의하고 이를 사회적인 약속으로 발전시킨 의의를 지니고 있다.
- 사회복지분야 투명사회협약은 지난해 보건의료분야에 이은 두 번째 협약체결로, 이로써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양대 부문 모두에서
 - 그간의 우리의 의식, 행동을 지배해 왔던 그릇된 관행을 극복하고 투명한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민간부문과 손을 맞잡고 협력하게 되었다.
 - ※ '05.9.13일 보건의료분야 20개 단체가 의약품 유통부조리 근절 등 보건의료분야 미결과제 해결을 위해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
- 아울러, 행사 당일에는 금번 협약의 5대 실천과제 중 하나인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복지시설 종사자 등 650여명(복지부 및 산하단체 감사실 직원 50여명도 참여)이 단체 헌혈에 참여하게 된다.
- 금년 4월부터 5개월여간 복지부와 13개 참여단체가 참여하여 열띤 논의와 합의를 거쳐 확정된 사회복지분야 투명사회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협약문은 공공부문,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강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인권·직원 근무환경 개선, 사회복지단체 사회공헌 활동 촉진, 윤리경영 등 5대 실천과제를 포함 총 7장 32조로 구성되어 있다.
 - 각 부문별 주요내용을 보면,
 - 첫째, 공공부분은 효과적인 부패방지체계 구축 등 각 단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복지분야의 처우 및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함
 - 둘째, 법인 및 시설의 운영비, 후원금 등의 사용내역을 외부에 공개하고, 이사 선임 시 자격검증을 강화하며, 예·결산서 공개 등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개입찰, 청렴계약제 도입 등 기능보강사업의 투명성 강화
 - 셋째, 진정함 설치, 인권침해 사례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정기점검 등 이용자 인권개선 노력과 더불어 공개모집에 의한 직원채용, 직원 처우개선 등 근무환경 개선
 - 넷째, 사회봉사단 구성·운영을 통해 헌혈, 재해구호 등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시설의 지역사회개방 등 지역복지 향상에도 노력
 - 다섯째, 사회복지관련단체 등의 자발적 윤리강령 제정 및 그 이행을 통한 윤리경영 강화 등이다.
 - 또한 금번 협약이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매년 협약 이행정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협약의 내용을 사회복지 관련단체, 시민단체, 복

지부 산하 소속기관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금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사회복지계 스스로 법인운영 등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발적·협력적으로 나서게 됨에 따라,
 - 최근 일부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횡령, 기능보강사업 집행 비리, 인권침해 사례 등 부정적인 시설운영 사례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보건복지부가 금년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보건복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 혁신대책과 더불어, 청렴도 향상에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06년도 보건복지행정 청렴도 향상을 위해 e-감사시스템, 민원 만족도·청렴도 실시간 평가시스템 구축, 자체 청렴도 측정, 전 간부간 청렴약정체결 등 다양한 대책 전개
- 아울러, 행사 당일에는 금번 협약의 5대 실천과제 중 하나인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 “서울 은평의 마을”, “동해 이레마을노인전문요양원”, “의령 노인전문요양원” 등 전국 51개 복지시설 종사자 600여명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함으로써
 - 투명사회를 향한 금번 협약에 임하는 사회복지가족의 각오를 국민들에게 전하게 된다.
 - 또한 복지부 감사관실 직원들도 지난해부터 부패단절 의지 고취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상징사업의 일환으로 건보공단, 연금공단, 심평원 감사실과 함께 금번 헌혈행사에 적극 동참하게 된다.
 - ※ '05년도 상징사업: 신고금품, 성금, 반부패 활동 우수기관 상금 등을 재원으로 아동학대에 방센터에서 보호중인 아동들에게 겨울용 방한 점퍼 지원
- 한편,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직원의 반부패 의식을 쇄신하고 청렴도를 획기적·근원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혁신대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 사회양극화·국민복지 향상을 주도하는 「Clean 보건복지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